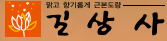


세계 3대유적지. 황금빛 불탑의 나라



미얀마 성지순례

동참금 249만원 일정 5박 7일

출발 2019년 11월 18일(월) 귀국 2019년 11월 24일(일)

항공편 문의 | 증무소 02) 3672-5945
대한항공 직항

여정

1 황금빛 도시 양곤

- 차옥타지 와불
- 로카찰다 파고다
- 까바예 파고다
- 웨다곤 파고다

2 2,500개 불탑의 도시 바간

- 웨산도 파고다
- 아난다 사원
- 웨지곤 파고다
- 딸로민로 사원
- 마누하 파고다

3 탁발·탁발공양 만달레이

- 쿠도도 파고다, 마하무니
- 마하간다움 수도원
- 만달레이 힐
- 우배인 다리

4 물의 도시 헤호

- 팡도우 파고다
- 목이 긴 카렌족

—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2019.9

맑음은 개인의 청정을,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진흙 속에서도 티 한 점 없이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2019 / 9

| | | |
|------------------------|----|---------------------|
| 다시 읽는 산방한담 | 04 | 기도하는 마음 |
| 처음 마음으로 | 11 | 인생의 우선순위 |
| 산다는 것 그림다는 것 | 17 | 조각일지 |
| 길상사 시간여행 | 22 |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책 ① |
| 아름다운 마무리 | 28 | 9월 결연 대상자 - 김상열(가명) |
| 인권 아단법석 | 30 | 자원봉사현장의 인권 문제 |
| 제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수상작 | 34 | 저학년/고학년 운문 |
| 맑고 향기롭게 활동소식 | 41 | |
| 길상사 소식 | 49 | |



• 이가은 「不二」 |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현대미술전공
불교의 불이(不二)사상을 화폭에 담아내는 화가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사)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우리들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단체로 본 소식지를 발행합니다.

2019년 9월 1일 발행 / 통권 295호 /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인 및 편집인 이형준 / 편집장 홍정근 / 편집위원 주소영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741-4696 전송 741-4698

인쇄인 · 인쇄처 디자인나경 유경은

대구모임 : (053)753-8883 / 경남모임 : (055)266-0710 / 광주모임 : (062)236-3129

<http://www.clean94.or.kr> / E-mail :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정스님에 의해 창건된 사찰입니다.

전화 (02)3672-5945 전송 3672-5947 / <http://www.kilsangsa.or.kr> / E-mail : kilsangsa@hanmail.net

기도하는 마음

글·법 정(法頂)

유마경 보살품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한 스님이 유마 거사를 만나 “거사님,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하고 묻습니다. 이에 유마 거사가 “도량에서 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도량道場이란 마음 닦는 곳입니다. 흔히 절을 도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도를 닦는 장소가 곧 도량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스님이 물었습니다.

“도량은 어디를 말합니까?”

“곧은 마음이 도량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심시도량直心是道場, 곧은 마음, 바른 마음이 곧 도량이라는 뜻입니다. 절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곧은 마음

으로 수도하고 교화하는 청정한 승가가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승가僧伽란 스님들만의 집단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승속이 함께 어울려 화합하는 모임 즉 화목한 어울림을 승가라고 했습니다. 비구계 중에도 파화합破和合, 화합을 깨뜨리는 죄가 가장 크다고 율장에 기록돼 있습니다. 뜻과 원이 하나가 되어 모인 단체, 그것이 바로 승가입니다.

종교적인 공덕은 기도에 의해 그 터전이 마련됩니다. 기도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후의 자산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능을 갖고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때 기도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수험생을 길러 본 어머니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이 수험생들을 합격시키거나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합니까? 어디에든 매달리고 싶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신세계는 무한하고 신비롭습니다. 기도의 힘과 그 영역 또한 불가사의합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없을 때, 기도의 힘으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안절부절할 때 드리는 간절한 기도는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하루하루 사는일 자체가 성에 차지 않을 때, 삶을 재충전하고 싶을 때에도 기도를 합니다. 반드시 어떤 요구사항이 있거나 집안에 우환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에는,

첫째,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남이 하니까 덩달아서 따라하는 것

은 기도가 아닙니다. 지극한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오로지 그 일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듯이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성 염불의功德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이웃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족끼리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중이 돼서 자신의 소원을 스스로 듣게 됩니다. 목소리 속의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귓속의 귀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기도는 홀로 해야 합니다.

여럿이 동참해서 하는 기도라 하더라도 결국 혼자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염원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 한사람이 자신의 기도에 몰입해야 합니다.

넷째, 기도는 침묵 속에서 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는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에 새움이 트게 됩니다. 마음에 고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마음속에서 깊어질 길 바라다면 결코 그것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또 기도를 법당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지 마십시오. 내가 일단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다면 그것이 하루이든 백일이든 그 기간동안 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나 법당에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중이기 때문에 굶은 일 안 본다며 이웃의 어려움도 모른 채하고 돌아선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선뜻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심화시키는 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꼭 절이나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기도일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꼭 그 시간에만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어떤 영적인 체험이 안에서 일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말하지 마십시오. 발설하지 말고 안에서 뜬을 들이라는 말입니다. 기도가 됐든, 염불이나 참선이 됐든 꾸준히 하다 보면 일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입 밖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안에다 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묵언으로 일관할 때 우주의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평소에 듣지 못하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섯째, 기도의 장소를 너무 가리지 마십시오.

흔히 잘 알려진 기도 도량을 찾아 다니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

니다. 고요하고 맑은 도량이라면 어디에서든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름난 기도도량일수록 번잡합니다.

장소를 따지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곧은 마음이 곧 도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서쪽에만 극락정토가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어디나 다 청산입니다. 내 마음의 잡념이나 번뇌라는 분별만 걷히면 바로 이 자리가 극락입니다.

기도의 공덕은 마음이 활짝 열리는 데 있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원래부터 열려있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망이 어떤 법계의 의지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법계의 의지는 늘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내 마음이 겹겹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활짝 열리니 법계의 의지와 내 소망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불안이 없어지고 평안

해집니다. 마음이 열리면 개인의 소망이 법계의 의지에 닿아서 뜻한 바가 이뤄집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 10년 동안 정성껏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영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 중에 문득 부왕의 허망한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히말라야로 들어가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는 선정에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구인데 여기 계십니까?”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말하기를 “나는 그대가 10년 동안 열심히 찾았던 관세음보살이다. 이제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러 왔노라”하는 겁니다.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이제 저는 선정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한때 부자가 되

고 싶었던 욕망을 버렸습니다. 당신은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10년이나 미루시다가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바로 말해줄 테니 명심하여라. 그대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10년을 한결같이 정성을 다한 공덕으로 본다면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그대를 가엾이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오늘까지 미루었던 것이다.”

세속적인 부와 선정의 기쁨 중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값지게 하는 것인지를 은연중에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응답이 곧 기도의 공덕임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미덕은 회향(廻向)에 있습니다. 회향이란 회전취향(廻轉趣向)의 준말로 내가 지은 공덕을 이웃에 널리 돌리는 것을 뜻합니다. 회향 발원문을 보면 “원컨대 이 공덕이 모두 이웃에게 두루 이르러 나와 남이 함께 부처님의

도를 성취하게 하소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씨입니까? 기도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니 이런 회향 발원이 저절로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타인에 대해서, 심지어 타종교인들에게까지도 따뜻하고 부드러운 친절한 마음씨를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자비심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여기에 편견을 갖게 됩니다. 자기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에 대해 적개심이나 무시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도와 명상으로 생활의 중심을 이뤄야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우주의 메아리입니다. 착한 마음을 지나면 착한 일이 내 앞에 닥칩니다. 반대로 나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쁜 일이 생깁니다. 모든 게 마음의 메아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유마경에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날 환경 문제를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청정하다면 환경이 이토록 오염될 수 없습니다.

산업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구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이 현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각 가정의 어머니들이 중심이 되어 덜 쓰고 덜 버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누구와도 맞서지 말아야 합니다. 맞서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벽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기도가 성취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깊이를 추구하는 사람은 새로운 샘플만을 찾아 헤매서는 안 됩니다. 그 중 맑은 샘을 하나 찾았으면 그 샘으로부터 날마다 물을 길어 마시라는 것입니다.

기도나 염불, 참선, 사회봉사 등 자

신이 어떤 일을 하든 한 가지를 택해 그것으로써 자신의 신앙생활을 삼아야 합니다.

왜 팔만 사천가지 법문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근기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의 근기를 따라 그것으로 자신의 정신적인 살림살이를 하라는 뜻입니다.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에 열과 성을 다해 어떤 잡념에도 끌림 없이 순수하게 몰입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가정은 화목하고 건실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는 직장과 사회는 어떤 비리와 부정도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세태는 험악할뿐더러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들도 중심을 잃고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가치 의식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 속

에서 우리는 불안한 나날을 맞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덧없습니다. 늘 변합니다.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맑은 업을 닦아야 합니다.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인생은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신앙의 꽃이 피고 깨달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기도 많이 해서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 1997년 9월 2일 길상회 법회 법문

인생의 우선순위

글 • 덕 일(德日)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발 디딤틈 없을 정도로 많은 신도 분께서 초하루 법회에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해서 그런지 그렇게 덥다는 느낌을 이제 법당에서는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자로서 불보살님들께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많은 이익과 가피를 내려주시지만, 저기 목석처럼 서있는 냉방보살(에어컨)을 의지하고 가깝게 하시면 때에 따라서는 오장육부와 온몸에 찬 기운이 들어와 지독한 냉방 감기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지난해는 엄청난 더위로 인해 모두 힘들었습니다. '장애 속에서 해탈을 이루라'는 말이 있지만, 더위를 견디

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들의 근기도 많이 나약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는 순천 송광사와 산내 암자인 불일암과 감로암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안전을 고려하여 버스를 20대로 제한하여 약 700여 명의 대중이 동참하였는데, 먼 길임에도 불구하고 한분도 낙오 없이 원만 회향하였습니다. 동참하신 여러 신도 분들께서 길상사 신도로서의 위의와 질서를 잘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승보총찰 송광사에 성지순례 가서서 세심(洗心), 마음을 잘 닦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정 스님 영상 강연 & 법문

“ 법정 스님 입적 9주기 해를 맞아 법정 스님의 영상 강연과 다시보는 법문으로 일요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 **일정** : 3월 ~ 11월, 4째 일요일
(4째 일요일외에는 일요 가족법회가 병행됩니다.)
- **시간** : 오전 11시(사시예불 후)
- **장소** : 설법전

요즘 안팎으로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골목상권의 폐업, 회사 인원의 감원·감축 등 여기저기에서 볼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 어쩔 수 없이 겪으며 사회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슬픈 얘기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허황된 꿈을 꾸면서 뜬구름 잡듯이 일확천금을 벌어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유혹의 손길, 마수(魔手) 속에서도 돈에 눈이 멀어 돈만을 쫓아 헤매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과연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그럼 근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오랫동안 회자되었던 실화를 실례로 들어볼까 합니다.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앞만 보고 달렸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 30대의 젊은 나이에 성형외과 의사로서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던 싱가포르 의사 리처드 테오 경 시앙씨. 그가 하는 수술 마다 잘 됐고 환자가 끊이지 않았으며 가족도 화목하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 가정도 꾸렸습니 다. 순풍에 돛을 단 듯이 모든 것이 순조로운 인생이었고 누구나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테오씨 본인도 스스로의 성공에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막힘없이 성공가도를 달리던 그는 2011년 폐암 말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던 테오씨는 2012년 후배 의대생들을 위해 강단에 섰고 이 강의는 영상으로 기록되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학생들 앞에 선 테오씨는 “나는 사회가 원하는 기준에 잘 들어맞는, 전형적이고 성공적인 제품이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유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성공이란 곧 부자가 되는 것이고, 성공해야 행복할 것이라고 철칙 같이 믿고 자랐습니다. 가난을 벗어나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행복해지기 위해 그는 매사에 경쟁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린 끝에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안과 의사가 됐지만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안과 진료는 그가 바라던 만큼의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만스럽던 중 눈을 돌린 게 성형 외과였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는 적은 돈도 쓰기 아까워하던 사람들이 지방 흡입이나 성형 수술에는 큰돈을 톡톡 쓰곤 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로 전공을 바꿨습니다. 그러저럭 먹고 살 정도의 돈을 벌던 안과 시절에 비해 성형외과 의사가 되자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원장” 직함을 달고 의사 네 명을 더 고용했

습니다. 스포츠카 애호가 모임에 가입해 주말마다 레이싱을 하며 즐기거나, 각계각층 유명 인사들과 파티를 즐기는 화려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릴 적부터 허물없이 지내는 제니퍼라는 친구가 있는데, 테오씨는 그 친구를 남과 달리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니퍼는 함께 길을 걷다 땅바닥에서 달팽이를 발견하면 달팽이를 손으로 집어다가 풀밭에 내려주고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득이 되는 일 말고는 관심이 없었던 저는 왜 친구가 한낱 달팽이 같은 미물에게 자비스런 마음을 갖는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달팽이일 뿐이잖아. 손 더러워지게 뭐 하러 그러는 거야?’라고 핀잔을 주곤 했지요. 이제는 제니퍼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2011년 3월 찾아온 말기 암 진단은 테오씨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암이라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그렇게도 소중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스포츠카, 멋진 집, 별장, 명예로운 상장과 트로피들이 한순간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나를 행복하게 해준 건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항암치료를 받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플 때 페라리 자동차를 끌고오고 온다고 해서 편안해지진 않는다고 농담하며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을 그제야 실감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늘 더 높은 곳을 향해 경쟁하느라 잊고 있었던 환자들의 존재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환자는 돈이라 여겼던 마음가짐이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테오씨는 “만에 하나 암을 이겨내고 다시 치료를 볼 수 있게 된다면 난 완전히 다른 의사가 될 것”이라 말하며 후배 학생들에게도 환자를 차

트에 기록된 병명이나 증상으로 보지 말고 세상에 단 한명 뿐인 사람이라 생각하고 진료해야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성공을 바라고 추구하여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전혀 나쁜 일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당부도 남겼습니다. 강의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012년 10월 18일 테오씨는 40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가 온라인 추모 사이트에 남긴 본인의 추모 글에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부디 나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록 테오씨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1년 조금 넘는 시간동안 그가 남긴 글과 강연은 여전히 남아 묵직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게 제 얘기를 잘 들으셨는지요. 비록 우리나라 젊은이는 아니지만 열심히 살다가 밝은 빛으로, 저 세상으로 떠난 젊은 의사가 고통 없는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원합니다.

오늘은 백중 초재를 봉행하는 날입니다.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진 어머니를 구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단지 강한 효심을 가진 목련존자의 이야기, 우란분재의 유래로만 인식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련존자의 설화를 통하여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자작자수(自作自受)라는 엄연한 인과법칙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지은 업보를 자기 스스로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대신할 수 없고 부모라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작자수의 엄연한 인과이지만 아무리 악도에 떨어

진 중생이라도 이를 구원하고자 지극정성을 쏟는 사람이 있으면 마침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매우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목련존자의 어머니는 생전의 과보를 아비지옥(阿鼻地獄)이라는 가장 밑바닥 지옥에 떨어져 억겁동안 고통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도 아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마침내 도리천에 태어나 천상락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는 단지 지옥중생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 가운데 나쁜 길에 빠져 온갖 악행을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들이 지극한 정성을 쏟으면 반드시 바른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 <대부모은중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가령 어떤 사람이 부모를 위하여 백천겁이 지나도록 뜨거운 무쇠탄환을 삼켜 온몸에 불이 붙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깊은 부모 은혜는 갚을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불전에 모여서 우란분재를 지내거나 불공을 드리고 천도의식을 거행하는 것만으로 조상님들의 천도가 이루어진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형식에 앞서 먼저 진심으로 부모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져야하고, 부처님에 대한 바른 선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죽어서 악도에 떨어져 자식들의 천도만을 기다리는 딱한 처지가 되지 않도록 살아생전에 선업을 부지런히 닦고 악한 행을 멀리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고불변(萬古不變)의 부처님 가르침은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업을 닦으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깨끗이 갖는 길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 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삶의 비결,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남의 가슴에 못 박는 짓 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

며 때 묻은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오늘 우란분재 백중 초재를 맞이하여 스스로 절대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더불어 돌아가신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효도를 하셔야 합니다. 효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으로 하여금 부처님에 대한 바르고 깊은 선심을 가지 시도록 전법하는 일입니다. 음식이나 옷이나 재물 등은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만은 저승길에서도 가장 확실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조상님들의 천도를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참된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 불기 2563년 6월 초하루 법문
(2019년 7월 3일)

조각일지

글 • 최중태

나는 조각가로서 일생을 여인상만 만들어 왔다. 그것도 소녀상뿐이었다. 왜 그랬는지 내가 나의 일을 설명할 수 없다. 그렇게 하도록 입력이 된 것이 아닐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일까. 전생의 업이 있어 이생에 관계된다고도 한다. 무심코 만든 것이 그렇게 된 것인데 어떤 한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필시 무슨 까닭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하고자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

내가 어찌해서 일생을 그런 것만을 되풀이할 수 있었는가. 나는 전혀 지루한 줄을 몰랐다.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고 의도한 것이었다. 그

러나 결과는 늘 소녀상이었다. 새로운 형상과 신선한 세계에 접근하려 한 것인데 귀착점은 번번이 소녀상이었다.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만들었다. 새로운 형상과 신선한 세계를 이룩하려 날마다 열심히 한 것인데 어찌해서 여인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는지. 그것도 소녀상에만 매달린 결과가 된 것인지. 참으로 모를 일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딴 일을 하는데 나만 동떨어져서 이렇게 살아왔다. 왜 그랬는지 정말 알 수 없다. 외롭고 소외된 생활이 힘들었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벗어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운명이란

말인가. 깨끗한 것, 맑은 것, 청순한 것, 그리하여 성스러운 것. 그런 단어들에 상징하는 세계가 늘 그리웠다. 그것은 끝이 없었다. 나중에는 성모상이 되기도 하고 관세음보살상이 되기도 했다. 되돌아보면 굽이굽이 끝없이 먼 길 같고 또 되돌아보면 인생 팔십이 잠깐인 듯싶다.

예술의 길은 끝이 없고 인생은 빨리 늙는다. 나는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한눈 팔지 않고 한길을 찾아 여기까지 왔다. 지름길이 있을 것 같아 헤매느라 오히려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다. 한 우물을 파라는 속담이 있다. 말로는 쉽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초년엔 길이 안 보여 막막했다. 다음에는 길이 사방에 널려 있어 선택을 어렵게 했다. 먹고사는 게 어려웠지만 참을 수 있었다.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거려니 생각했다.

어려운 것은 예술이 손에 잡히지 않는 일이었다. 알 수도 없고 풀어나가는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다 물어서 될 일도 아니었다. 모든 것은 내 한 마음 쓰기에 달린 일이었다. 꿈만 구름처럼 부풀어 있었지 사방은 칠흑 같은 밤이었다. 그 밤길에 위로가 되는 것은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친구들뿐이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은 가고 또 가고 했다. 흐르는 세월마저 없었더라면 더욱 막연했을 것 같다. 세월이 약이란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다. 잊어버린다는 것이 참 좋은 약이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 새날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잠이 들었다. 매일의 삶이 그러했다. 그렇게 한 세월이 흘렀다. 그리하여 지금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분명히 알게 된 것은 예술이란 바다와 같이 넓은 것이고 내게 주어진 나의 한계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는 계속해서 생각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물음은 끝없이 계속되었다. 어떤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아하! 조각이란 모르는 것이다!' 하는 깨달음이 있었다. 나는 벌떡 일어났다. 모든 것은 다 모르는 것이었다.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모른다는 것을 알고서 얼마나 흥가분했던지...

그때 내 나이 쉰 살이었다. 사람이 안다는 것은 매우 작은 어떤 부분일 뿐이다. 바다를 보았지만 한 구석을 본 것이지 전체를 본 것은 아니다. 아무도 전체를 본 사람은 없다. 예술이란 한 전체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전체다. 그것을 나는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다. 아무튼 예술이란 알 수 없는 것이고 나의 한계가 보이는 만큼 분수에 넘

는 일을 욕심낼 수 없었다.

세월은 견잡을 수 없이 또 흘러갔다. 지금은 언제 끝날지도 모를 나날을 살고 있다. 기뻔 데도 없다. 스승들이 있었지만 모두 저세상으로 떠나셨다. 혼자 있는 게 습관처럼 되었다. 어릴 때 종이배를 만들어 개울에 띄우던 생각이 난다. 종이배는 물살 따라 뒤뚱거리며 흘러갔다. 그 모양이 마치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것 같다. 의지보다 상황에 따라 내가 움직인다. 일하는 시간만큼은 즐겁다. 일하는 시간은 잡생각이 끼어들지 않아 좋다.

손자가 장난감 놀이를 한다. 그걸 보면서 내 처지를 생각했다. 효용성이 없는 일에 열중하는 것. 옛날 어른들은 유희심매라 했다. 어른이 아기들 장난감 놀이하듯 열중하는 형국과 같은 일이다. 나이 들어 예술을 하는 일이 어린이 놀이하듯 즐거

웠으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목적성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큰 예술가들이 모두 어린이와 같이 돼야 한다고 했나 보다. 어린이가 어른이 됐다가 다시 어린이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그게 무슨 이치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아름다운 일인 것만은 분명하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예술가는 노년(老年)을 보아야 한다. 나는 지금 그 예술가의 노년을 살고 있다. 탐진치(貪瞋癡)를 다 버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탐함도 남아 있고 성냄도 남아 있고 어리석음도 남아 있다. 그러나 때때로 조용할 때가 있다. 멀쩡하니 앉아 깜박 나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 일할 때는 다른 내가 살고 있는 듯 현실을 잊어버린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확실하게 살 수 있는 나의 시간이다.

여러 가치에 대해 나는 알지 못한

다. 일시에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광경을 나는 보았다. 모든 것이 하나 될 때 모든 것은 무너졌다. 그것은 이른바 인간적 한계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 늙음이라는 말 속에는 한 생의 경험세계를 한눈으로 본다는 뜻이 있다. 무엇인들 안 보았겠는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 생각한다. 어디로 가는가. 어떻게 갈 것인가. 작품을 만드는 데 무슨 의미를 두지 않는다. 오늘을 사는 데 무슨 의미를 두겠는가.

요새는 일에 빠지는 시간이 그저 좋다. 철모르고 접어든 길인데 이렇게 멀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일일 것이니 가르쳐 줄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림이란 것은 끝 날까지 찾아야 할 일이다. 문인들은 이런 말을 했다.

“왜 글을 쓰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 글을 쓴다.”

먹고살기 위해 글을 쓴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좀 비약된 말이 아닐까 싶다.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예술의 길이다. 나는 그것을 알고서 답을 찾는 일을 포기했다. 그러고서 27년이 지나갔다. 화살같이 지나갔다.

좋은 작품이 만들어져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도 부질없는 꿈이다.

“능금나무 열매는 쉬면서 익는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인 듯싶다. 예술가의 노년은 서두르지 않는다.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얻어야

한다. 과일은 나무에서 떨어지기 전까지가 더 아름답다. 완전한 익음의 상태로 아직 가지에 붙어 있을 때.

나는 바다를 보았다. 나는 다만 바다의 한 부분만을 보았다. 그러나 부분이 전체와 같을 수도 있다. 나는 내가 작아진 것을 보고 있다. 작은 것 앞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큰 것이 된다. 가장 큰 것을 일러 무한이라 한다. 무한이란 영원이란 말과도 같다. 강물이 한번 바다에 이르면 되돌아갈 수 없듯 사람의 발걸음도 지나온 데를 되짚어갈 수 없는 것. 예술의 길은 한정이 없고 인생이라는 수레바퀴는 사정없이 돌아간다.

최중태(1932 ~) •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김종영 선생과 장욱진 선생을 만났다. 1958년 조소과를 졸업하고 1959년부터 국전에 출품하여 문교부장관상과 추천작가상을 받았다. 그림과 조각 못지않게 글쓰기를 좋아하여 '나의 미술 아름다움을 향한 사색' 등 7권의 수상집과 '교회조각' 등 8권의 화집을 냈다. 한국가톨릭미술상·서울시문화상·대한민국예술원상을 받았고,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장을 지냈으며, 지금은 김종영미술관장·서울대 명예교수·대한민국예술원회원이다.

법정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책 ①

글 • 홍정근

“덕진은 머리맡에 남아있는 책을 나에게 신문을 배달한 사람에게 전하여 주면 고맙겠다.”

‘무소유’를 화두로 삼고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를 몸소 실천하시다 입적하신 법정 스님이 2010년 2월 24일 상좌 스님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장에서 책에 관한 내용이다.

법정 스님이 1971년 쓴 ‘머리 쓰는 유서’에는 “내가 죽을 때에는 가진 것이 없으므로 무엇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번거로운 일도 없을 것이다. 본래 무일물은 우리를 사문의 소유관념이니까. 그래도 혹시 평생에 즐겨 읽던 책이 내 머리맡에 몇 권 남는다면, 아

침저녁으로 ‘신문이오’하고 나를 찾아주는 그 꼬마에게 주고 싶다.” 라고 쓰셨다.

60년 대 후반에서 70년대 초 동국역경원 역경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서울 봉은사 다래현에 머물던 법정 스님에게 아침저녁으로 신문을 배달했던 소년은 어느새 중년이 되어, 2010년 3월 31일(스님의 49재 삼재 날) 길상사에서 ‘머리맡에 남아있는 책’을 덕진 스님에게 전달받았다. 그리고 중년이 된 그 소년은 “이 6권은 내 것이 될 수 없으며 스님을 사랑한 사부대중의 공동 소유물”이라며 “책을 다 읽고 스님 발자취를 찾아본 뒤 길상사가 원하면 아무 조건 없이

기증하겠다.”고 말했다. 그 소년 또한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배운 듯 하다. ‘머리맡에 남아있는 책은 스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의 영혼을 위로한 책일 것이다. 사십년의 세월이 흘러도 스님의 한결같은 필행일치(筆行一致)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며, 수많은 인연 속에서 지키지 못한 약속과 작은 시은(施恩)조차 빛으로 생각하셨던 스님의 대쪽 같은 성품이 그대로 느껴진다.

법정 스님이 머리맡에 남긴 책은 ‘월든(헨리 소로), ‘선사(석지현 옮김), ‘선학의 황금시대(오경웅), ‘벽암록(碧巖錄)(안동립 역주), ‘생텍쥐페리, 생텍쥐페리의 위대한 모험(르네 켈러), ‘예언자(칼릴 지브란)로 6권의 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월든(Walden)

월든(Walden)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시에서 남쪽으로 2km

남짓 떨어져 있는 호수다. 175여 년 전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Henry David Thoreau·1817~1862)가 이 호수가 숲속에 오두막을 짓고 2년 2개월 동안 노동과 학문의 삶을 살면서 그의 사상이 무르익게 되고 도덕적 신조가 분명한 형태를 갖추게 된 그 영향으로 세계적인 호수가 되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대표작 <월든>은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동시에 물질문명의 폐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소로우는 미국 하버드대학을 졸업한 뒤 형과 함께 사설 학교를 열어 잠시 교사 생활을 했다. 그리고 작가이자 사상가인 랄프 W 에머슨(Ralph W Emerson) 집에서 가정교사를 하며 틈틈이 잡지에 글을 기고했다. 소로우는 1845년 3월부터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집을 짓기 시작해 같은 해 7월부터 1847년 9월까지 그곳에서 홀로 지냈다. 월든 호숫가에서 2년을 지내

며 기록한 것이 〈월든〉이다.

월든이 한국인들에게 더욱 유명해진 것은 법정 스님의 글에서 자주 언급된 덕분이다. 법정 스님은 생전에 소로우를 누구보다 흠모한 것 같다. 미 동부를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면 월든 호수를 찾아 소로우의 자취를 더듬었는데 생전 3번 방문하셨다.



법정 스님을 위해 두 번 이곳을 안 내한 뉴욕 불광선원 주지 휘광 스님의 회고에 따르면, 법정 스님이 처음 통나무집을 찾으셨을 때 ‘소로우 선생, 저 법정입니다. 법정이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다고 한다.

“간소하게, 간소하게 살라. 두 가지나 세 가지로 줄일 것이며, 백 가지나 천 가지가 되게 하지 말라.” 소로우

의 경구(警句)는 자연과 함께 한 법정 스님의 글과 매우 많이 닮았다.

생텍쥐페리, 생텍쥐페리의 위대한 모색

르네 켈러가 쓴 생텍쥐페리의 평전이다. 안응렬이 우리말로 번역해 1980년에 흥성사에서 나왔다. 작가 소개와 작가 연보를 비롯해 작품에 대한 해설을 실었다. ‘남방우편기’ ‘야간비행’ ‘인간의 대지’ ‘전시 조종사’ ‘성채’ ‘어린 왕자에 대한 켈러의 해설’과 감상을 엮볼 수 있는데, 그는 ‘어린 왕자’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가장 단순한 것이고 진정한 재산은 남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부드럽하면서도 진지하게 상기시켜준다. 절판된 지 오래되어 중고서점에서 구하기 어렵다.

벽암록(碧巖錄)

〈벽암록〉은 중국 전통 선(禪)의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책으로 중국

사상 특유의 장대한 스케일과 풍부한 문학적 상징을 통해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세계관을 제시한 책으로 안동림이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다. 언어에 대한 철저한 불신에서 출발하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세계, 일체의 지견이 끊어진 은산철벽(銀山鐵壁)에서 이토록 언어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역설, 이것이 바로 불교, 선종, 그리고 ‘벽암록’의 세계이다. 선의 종조(宗祖)인 달마대사와 양나라 무제(武帝)의 문답을 제1칙(則)으로 100칙까지의 내용을 소개했다.

법정 스님은 1998년 4월 18일 도올 김용옥 교수의 초청으로 벽암록(碧巖錄) 강의를 도올서원(당시 서울 대학로 성좌소극장 4층)에서 한 바 있다. 도올서원은 조선시대 선비의 맥을 잇는 현대판 서당이다. 당시 4백여 명의 청중이 모여 법정 스님의 강연에 귀를 기울였는데,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이 유배지에서 두 아

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전투적인 기상을 부드럽게 안으로 다스려 법도에 맞게 할 줄 알아야 진정한 인재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모름지기 씩씩한 기상과 기개를 가져야 하는데 요즘 대학은 본래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라며 다산과 당나라 시대에 살았던 임제(臨濟)선사의 어록을 통해 지식인의 사명과 학문의 의미를 일깨워 준 바 있다.

선시(禪詩)

1975년에 ‘현암선서’의 한 권으로 출간되어 많은 독자들에게 읽힌 〈禪詩〉는 ‘선시’라는 말 혹은 장르를 처음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알린 기념비적인 책이다. 한국, 중국, 인도의 고승과 시인들이 남긴 ‘선문(禪門)’의 진수를 집대성한 이 책은 불교에 관심을 가진 이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에게도 시적 감동을 주어 오래도록 읽혔다. 언어를 거부하는 선과 언

어를 전제로 하는 '시'를 통해 완성된 선시를 감상하는 법을 수록한 책으로 석지현 스님이 우리말로 옮겼다.

선(禪)은 달마의 '불립문자(不立文字)'로부터 출발한다. 일체의 깨달음은 누가 전수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경전에서도 찾을 길 없다. 오직 자기 자신 속에서 직관적인 깨달음(得道)만이 있을 뿐이다. 선승들은 자신들의 깨달음의 경지와 희열을 시를 통해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선시(禪詩)의 출현이다. 그래서 선시는 선시(仙詩)요, 오도송(悟道頌)이요, 증도가(證道歌)이기도 하다.

2013년 개정판에는 384편의 선시를 18개장의 사상(詩想)으로 나누어 담았다.

선학의 황금시대

선에 관한 기독교의 견해를 비롯해 선의 기원과 중요성, 벽관 바라문 달마와 그의 직계 제자, 제 육조

혜능, 마조 도일, 조주 종심, 선두 문하의 대선사들 등 당대의 위대한 선사들에 의해 체득되고 교시되었던 불교의 진인 선학의 발생과 발전, 정신을 밝힌 책으로 대만 최고의 지성으로 추앙받는 오경웅(吳經熊)이 쓴 책이다. 1978년에 서돈각의 번역으로 한국어 초판이 나왔는데, 법정 스님은 1978년 판 <선학의 황금시대>를 읽으신 것 같다. 위양중, 조동중, 임제중, 운문중, 법안중의 개조와 그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룬다. 불교 특히 선종 자체가 그렇지만 노자, 장자의 사상 자체에 격의된 부분이 많아 설명에 도덕경과 장자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알기 쉽게 도표로 계보도를 그려 놓아 이해하기 쉽다. 선시도 간간이 추가해서 선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스님이 남긴 <선학의 황금시대> 안에는 스님의 낙관이 찍혀있다.

예언자

칼릴 지브란(1833~1931)의 <예언자>는 20세기에 영어로 출간된 책 중에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기록된다. 고전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그 문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 받는 작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에 함석헌 선생이 <씨알의 소리>에 번역해 실으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으며, 이후 1976년 강은교 시인의 번역으로 나온 <예언자>가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

칼릴 지브란은 레바논 태생의 시인·소설가·화가로 열두 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하며 이슬람의 정신으로 기독교를 받아

들었다. 열다섯 살에 '예언자(The Prophet)'를 처음 썼으나, 초고를 20여 년 동안 가지고 다니면서 수없이 다듬고 고쳤다. 모국어인 아랍어도 수없이 고쳤고 영어로도 퇴고에 퇴고를 거듭했다. 1923년, 미국 출판사와 계약을 하고나서도 4년 동안 다섯 번이나 고쳐 쓴 뒤에야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다. 칼릴 지브란이 이 작품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예언자>는 스님이 친필로 제목을 적고 하얀 책 표지를 직접 만든 정성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을 정도로, 평생 간직하며 삶의 길라잡이로 삼으신 듯하다.(다음호 계속)



법정 스님이 머리말에 남긴 책

9월 결연 대상자 - 김상열(가명)

이제 어디로 가야 하죠?

2018년 8월, 김상열 어르신(만 68세)은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넘어졌을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그날 밤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뜻 밖에도 병원에서는 장 출혈 진단을 내렸고 무려 3차례의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덜컥 수술을 진행했으나 수술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주민센터의 긴급 의료비 지원으로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 고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적으

로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된 어르신

어르신은 젊었을 때 가방공장에서 가방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손재주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르신이 만든 가방을 찾았고 자신감을 얻은 어르신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대 이상으로 장사가 잘되었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돈을 주기로 했던 거래처들이 부도가 나서 자금을 융통할 수 없게 되면서 사업이 갑작스럽게 망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가족 간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중

중 연락을 이어가던 자녀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기게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어르신은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장 출혈 전 어르신의 몸무게는 58kg이었지만 수술 후 영양 공급의 문제로 몸무게가 급격히 줄어 47kg이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약 7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중 월세 30만 원을 내고 통신비, 차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30만 원으로 먹고

입는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창문 하나 없는 고시원에서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시원 특성상 조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식사의 대부분을 외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만 한 끼에 7~8천 원 하는 식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주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생계비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고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생계비 36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매월 30만 원씩 1년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 신한은행 100-013-787953 사단법인 맑고 향기롭게
- 아름다운 마무리 모금 캠페인은 소식지 소개와 더불어 인터넷 다음 카카오 같이가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현장의 인권 문제

글 • 서미화

연말이면 사랑의 '자선냄비'와 '김장 담그기'로 대표되는 다양한 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진다. 사실 연말이면 이런 활동들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긴 하지만, 시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 각 영역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4가량은 1년에 한번이라도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향이 있다. 자원봉사는 시민들의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참여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활발한 자원봉사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시민들이 서로 돕는 연대의 정신을 북돋우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봉사학습, 직장인들의 사회공

헌활동, 그리고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같은 제도와 정책을 통해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 다양한 자원봉사 참여 캠페인은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 자원봉사에 관한 논의와 실천이 발전하면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양적인 측면과 함께, 자원봉사가 좋은 사회를 만들고 있는가에 관한 질적인 측면도 중요시 되고 있다. 즉 자원봉사는 참여하는 사람의 '의도'도 선택해야 하지만, 그 '결과'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봉사 활동이 좋은 일이니 무턱대고 많이 하는 것만이 능

사가 아니라, 그것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세심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의가 활성화 되는 배경에는 자원봉사가 좀 더 책임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과 선한 의도로 하는 활동이지만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자원봉사가 의도도 선택해야 하지만, 그 과정과 결과도 선택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인권에 관한 것이다.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로 시민들의 모든 삶의 현장과 관련이 있으며, 인권은 모든 시민들의, 삶에서 동등하게 실현돼야 한다. 여기에 자원봉사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민이 동료 시민을 돕는 아름다운 자원봉사의 현장에서도 인권문제는 나타나고 있다. 자원봉사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권의 문제는 도움수요자,

자원봉사자, 자원봉사관리자 등 모든 주체에게 일어날 수 있다.

최근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 시설이나 보육원 등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 과정에서, 자원봉사 참여자들의 기념촬영이나 언론보도의 과정에서 도움수요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공개되는 일이 흔했다. 심지어 목욕봉사활동과 같은 도움수요자들의 신체 부위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좋은 일이라는 명목아래 벌어지는 폭력적인 상황이 자원봉사 현장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이런 경우 대체로 의사결정을 혼자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적장애인이거나 치매노인, 어린이 등이 도움수요자일 때가 많고 대상화되어 자원봉사 하는 '좋은 그림' 중 하나로 공개 당하기 일쑤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도움수요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고 공개하는 것이 도움수요자

들이 단지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여건에 있기 때문일까?

청소년기에 자원봉사를 통해 학교에서 배우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작은 힘을 보태는 일이 봉사학습의 취지이다. 하지만, 자발성에 기초해야하는 자원봉사가 매학기 채워야하는 시수를 정해놓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이 그다지 교육적이지도 즐겁지도 않은 때가 많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자원봉사기관에서는 기관의 활동을 홍보해야한다는 이유로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한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단체사진 찍을 때 청소년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가린 채 사진을 찍는 모습들이 종종 보인다. 도움수요자들 뿐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원하지 않을 때는 사진 찍히지 않

을 권리가 있다. 대부분은 좋은 의도로 자원봉사자들을 촬영하고 긍정적인 메시지와 함께 사진이나 영상물이 공유되는 경우가 많지만, '좋은 의도'가 타인 권리를 침해하게 될 수도 있음을 늘 자각해야 한다.

인권침해에 경중을 따질 수는 없겠으나 자원봉사 현장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는 일 중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들도 있다. 가령 가정방문 자원봉사활동 시는 반드시 2인 1조 버디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결근한 자원봉사자의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혼자 가정방문을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가정방문 봉사의 경우 타인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야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사용하는 도움수요자에게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때로는 자원봉사자 역시 위험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나의 사례로 가정방문 봉

사에 혼자 가게 된 한 봉사자는 도움수요자가 덮치듯 자신의 몸으로 넘어져 너무 놀라 도망 나온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혼자 오해한 것은 아닌지 몰라 다시 돌아가 아무 일 없는 듯 반찬을 건네주고 왔다'고 한다. 정말 봉사자의 오해였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봉사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원봉사 현장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봉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인권 문제는 앞서 살펴본 도움수요자와 자원봉사자의 경우 뿐 아니라,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관리자의 입장에서도 겪는 문제다. 자원봉사관리자 역시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수요자들로부터 겪을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관리자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호칭으로 부르다거

나 차별적인 언행을 하는 일도 있으나 자원봉사자들이 그동안 헌신해온 업적이나 관계성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위의 모든 사례들은 자원봉사현장이 통상적으로 권리보다는 책임을 강조해왔고, 사랑과 헌신의 이미지로 인해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인권문제들이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인권을 실현해 낼 수 있는 장으로서 자원봉사현장이 건강하게 책임과 권리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면 자원봉사현장의 인권 문제가 드러나고 관련 주체들은 이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최근 몇 년에 걸쳐 자원봉사센터들이 자원봉사자들의 인권교육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기도 하고 인권적 자원봉사 실천이 되기 위한 가이드북도 발간하는 시도를 통해 노력이 시작되고 있어 긍정적이다.

(사)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문학적 가치를 되새기고, 어린이들에게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알리고자, 지난 8월 11일에 '제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길상사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9월호와 10월호에 나누어 운문 수상작과 산문 수상작을 수록합니다.

• 저학년 운문 •



자 연

곽 동 효 • 서울 중평초등학교 3학년

어미 호리병벌
집 지으러 날아왔지
나무들 반갑다 인사하지
산새들은 아름답게
노래하지
바람이 와서
파도 소리 내며
고요하게 사라지지
도토리들도
경쾌한 소리 내지
시원한
소리를 내는 악기들



자 연

김 기 태 • 서울 상경초등학교 3학년

떡갈나무
어디 아픈가
아이들을 떨어뜨리지

애벌레
올라와도 무관심이지

산바람을 타고
도토리과 멀리 여행 떠나지
아이들
떡갈나무를 볼 때마다
엄마가 그림지



무소유

정 서 은 • 서울 상경초등학교 3학년

짱구개미
작은 몸집으로
쿠키를 질질 끌고 가네
진땀을 뻘뻘,

너무 버거워
쿠키를 버리고 마음 비우네



자 연

권 아 랑 • 서울 상경초등학교 3학년

매미
구슬프게 우네
무슨 이유일까

더 살지 못해서일까
다시는
날지 못해서일까



가 을

김 민 강 • 서울 중광초등학교 1학년

단풍나무 잎이 주렁주렁
바람은 췌췌 불어오고
은행은 푹! 떨어지고
비는 조용히 쉬고 있다

가을의 시간이 오고
내 생일이 온다
지금까지 가을과 보낸
일곱 번의 시간이 너무 좋아서
여름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이번에는 어떤 가을이 올지
기대하고 있다.



길상사

박 재 우 • 서울 중평초등학교 5학년

수매미들이 귀청 떨어지게 비명 지르지

도토리들
어디서 굴러왔나
길바닥에 내뺨개쳐져 울지

땡벌이
지겨워진 바람

둘단풍 나뭇잎은
나뭇가지와 번지 점프하지



자연의 종류

엄 세 희 • 서울 돈암초등학교 5학년

자연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아!
숲속에도 자연,
동물이 사는 곳도 자연.

자연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아!
채소도 자연,
동물이 먹는 음식도 자연.

자연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아!
개그맨의 개그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짜짜로니.



법정 스님

이 예 화 • 서울 길음초등학교 6학년

길상사에 욕심 많은 다람쥐가 있었다. 이 도토리도 내꺼 저 도토리도 그 다람쥐 몫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법정 스님이 꼬마 스님들과 이야기를 하였고, 숲속 친구들도 모두 모여 그 이야기를 듣기에 그 다람쥐도 딱 갈나무 밑에서 이야기를 들었지.

꼬마 스님이 물었지. “스님, 무소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을 말하나요?” 그러자 법정 스님이 꺾꺾 웃으며 말씀하셨어. “아니, 아니, 무소유란 내가 물건을 3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물건을 가지지 않은 친구에게 나누는 마음이란다. 또 물건뿐만 아니라 사랑도 나누고 이를 실천하는 게야.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단다.”

이 말을 듣고 다람쥐는 숲 친구들이 하나둘 떠올랐지. 다람쥐 마음에서도 맑고 향기로운 무소유 연꽃이 피어나는 듯했어.

다음날 법정 스님의 책상에, 작은 부처님과 무소유 책 옆에 도토리 몇 알이 놓여 있었어.

하지만 법정 스님은 놀라지 않고 도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셨어. 왜냐하면 법정 스님은 도토리가 왜 이곳에 있는지 아셨거든.



도움 보따리 자연

김 윤 서 • 서울 중계초등학교 6학년

바람이 솔솔솔 불어온다
바람이 가져다주는
시원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
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진다

매미가 땀땀땀 노래한다
매미들이 뿜내는
우렁찬 노랫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긴다

연못 속의 연꽃이 방긋방긋 피어있다
햇빛에 비친 화려한
아름다움을 보면
나조차도 아름다워지는 것 같다

자연은 나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는
도움 보따리 같다

고마운 도움 보따리 자연에게 보답하려면
나는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할까?



그러니 그대

이 세 화 • 서울 길음초등학교 6학년

욕심 속에서 연꽃이 피어났다

있는 매우 커, 다른 동물이 쉬다 갈 수 있고 매우 단단하여 유혹에 말려들지 않는다.

연밭 속에서는 소중하게 무소유 연꽃 씨를 보듬고 있다.

연꽃잎은 한 잎 한 잎 모두 배려, 감사, 사랑 등 제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꽃에는 맑고 깨끗한 향기가 난다. 얽매이던 일상에 지쳐있던 그대가 그 향기를 맡는다면 잔잔한 미소를 머금을 것이다.

연꽃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바로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 그대 그 연꽃을 피워라.



제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진행

(사)맑고 향기롭게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정서 함양과 문예 창작능력을 고취시키고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글과 맑고 향기로운 정신을 널리 공유하고자, 지난 8월 11일 「제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를 길상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중환(전 문체부 장관), 박형준(동국대 국어국문 문창과 교수), 홍용희(문학평론가), 함명춘(시인)을 심사위원단으로 구성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8월 25일(일)에 시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입상하신 어린이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안타깝게 입상하지 못했지만 열정을 가지고 참가한 모든 어린이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제3회 무소유 어린이 글짓기 대회 수상자 명단 | | | |
|-----------------------------|----|-----|---|
| 무소유상 (장원) 장학금 50만원 | 운문 | 저학년 | 곽동효(서울 중평초) |
| | | 고학년 | 박재우(서울 중평초) |
| | 산문 | 저학년 | 진서희(서울 언주초) |
| | | 고학년 | 김규빈(서울 어울초) |
| 맑음상 (차상) 장학금 20만원 | 운문 | 저학년 | 김기태(서울 상경초), 정서은(서울 상경초) |
| | | 고학년 | 엄세희(서울 돈암초), 이예희(서울 길음초) |
| | 산문 | 저학년 | 양정인(서울 삼선초), 조서영(서울 중평초) |
| | | 고학년 | 김수리(서울 정릉초), 이민지(서울 송덕초) |
| 향기상 (차하) 장학금 10만원 | 운문 | 저학년 | 권아람(서울 상경초), 김민강(서울 중광초) |
| | | 고학년 | 김윤서(서울 중계초), 이세희(서울 길음초) |
| | 산문 | 저학년 | 윤은강(서울 대도초), 전유해(서울 신가초) |
| | | 고학년 | 강승민(서울 석계초), 조민지(서울 을지초) |
| 장려상 장학금 5만원 | 운문 | 저학년 | 문지호(서울 영훈초), 박건우(서울 중평초), 박수인(서울 길음초), 신채은(서울 경화초), 이한나(서울 개운초) |
| | | 고학년 | 김수아(서울 은석초), 양원준(서울 수송초), 오연서(서울 원광초), 이아영(서울 삼선초) |
| | 산문 | 저학년 | 김나윤(서울 당서초), 박서우(서울 언북초), 장현진(용인 나산초), 조현준(서울 을지초) |
| | | 고학년 | 김지후(서울 서정초), 박예나(경기 진접초), 신지민(인천 굴현초), 윤영우(서울 경기초), 이하은(서울 송덕초) |



2019년 숲 기행 맑고 향기로운 암자를 찾아서

1. 9월 28일 숲기행 안내

- 경북 운달산 김통사
- 백두대간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운달산과 김통사의 산내 3암자 순례

2. 접수 안내

- (사)맑고 향기롭게 회원 및 길상사 신도 :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9월 2일)
- 일반인 : 매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접수 가능(9월 9일)

3. 참가비

- 회원 및 신도 : 30,000원 / 일반인 : 40,000원
- 입금처 : KEB하나은행 257-890001-69804 / 예금주 : 맑고 향기롭게
- 참가비 환불 원칙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할인 안내

- 전년도 3만 원 이상 후원 회원에 한하여 할인 가능하며 신규 회원은 후원금 납부하여 3개월 후 참여 가능
- 길상사 신도는 신도증 소지자로 한함
- 가족 참석은 직계 가족 1인으로 한함

5. 탑승지

- 길상사 일주문 : 오전 6시 10분 / 한성대역 5번출구 : 오전 6시 20분 / 양재역 2번 출구 오전 7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세요)

6. 접수방법

- 전화 및 방문 접수(02-741-4696)

생태사찰 가꾸기 봉사자 모집

우리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며 생명의 존엄을 배우고 사소한 일상생활일지라도 생태적으로 살라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길상사 생태사찰 가꾸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활동이 진행되오니 뜻을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사는 일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본 모임 홈페이지 회원제안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회원님의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나 직접 발간하신 저서, 글,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등이 있으면 사무국으로 방문 또는 전화, 편지, 전자 우편으로 알려주세요. 또한, 청정한 마음과 세상 그리고 자연을 더욱 맑고 향기롭게 가꿀 수 있는 여러 활동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공유해주실 분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맑고 향기롭게 정기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조리 활동

맑고 향기롭게 중앙모임에서는 우리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결손가정 480여 가구에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마련한 2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설날, 추석)과 정월대보름, 부처님오신날에는 생필품을 나누고 연말에는 김장김치를 대상자 가정에 15kg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2시 전에 끝나는 활동으로, 조금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씩씩 해 주실 수 있는 봉사자의 손길을 절실히 기다립니다. 경기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할수록 조그마한 관심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3월부터 10월 까지 둘째 목요일에는 김치 나눔을 진행합니다. 중앙모임 봉사자를 비롯하여 KTX 나눔이회, S파워 사랑봉사단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고 있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함께 협력하면 훨씬 더 쉽고 맛있게 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

진인 노인요양원 자원활동은 오전에는 시설 청소, 주방 봉사를 하고, 오후에는 어르신과 어울려 민요, 국악 등 놀이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안국역 1번 출구 옆 골목에 모여 이동합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자원활동

서울 종로구 안국역 옆에 위치한 어르신 이용시설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는 매일 2,0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께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은 매주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오전 10시까지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식당으로 오셔서 맑고 향기롭게 자원활동팀을 찾으시면 됩니다.



* 의류 리폼 자원활동 봉사자 모집

맑고 향기롭게 의류리폼 자원활동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작은 환경운동으로 안 입고, 못 입는 자투리 천을 이용하여 각종 소품이나 재활용품을 만들어 길상사 경내에 개점한 '맑고 향기로운 가게'를 통해 판매하고, 수익금은 세상 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길상사내 세계일화실에서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의류리폼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혹은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CMS후원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 신청하신 은행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일시 후원

뜻 깊은 일이나 기념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 본모임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 중에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인적사항이 필요하므로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세요.

지로 후원 안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우편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본 모임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로 번호 : 7618372

지로 번호로 은행에 가지도 않고도 인터넷(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9월 중앙모임 정기 활동 안내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자원활동 : 4일(수)/오전 10시~12시 / 세계일화실
- 일요특강(법정 스님 영상법문) : 22일(일) / 오전11시 / 길상사 설법전
- 필자모임(법정 스님 저서 읽기)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세심당, 세계일화실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반찬 나눔 자원활동 : 매주 목, 금요일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김치 나눔 자원활동 : 추석 연휴 관계로 봉사활동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서울노인복지센터 점심 무료급식 자원활동 : 매주 월요일 / 오전 10시~오후 2시 / 배식, 설거지, 식탁 정리, 수저 나누기 활동 / 수시 모집 중 / 자원 활동가 교육 후 봉사
- 진인 노인요양원 원내 청소 및 오후 놀이마당 정기 자원활동 : 추석 연휴 관계로 봉사활동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아름다운 만남(청소년과 독거어르신과의 만남) : 셋째, 넷째 토요일(21, 28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숲가행 : 9월 28일(토) 경복 운달산 김릉사.
- 의류 재활용 봉사모임 : 매주 화요일 / 오후 12시 / 세계일화실
- 생태사찰 가꾸기 모임 : 매주 월, 목요일 /

길상사 경내

-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 : 짝수 달 매주 수요일 / 오후 1시 30분 / 세계일화실

<정기 재정 후원>

- 시각장애인 호송 단체 '부름의 전화' 정기 후원
- '월곡 청소년 센터' 위탁운영 및 물품 후원
- 서울 지방 변호사협회 결연 청소년 지원
- 제주도 극빈 어르신 정기 물품 지원
- 자혜원(아동 양육시설)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집양(jamyang) 비구니스님 학교 후원

맑고 향기롭게 모바일 앱(APP) 안내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의 활동소식과 법정 스님의 법문 영상, 잠언을 모바일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해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과 앱(AP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과 길상사 신도님의 많은 활용과 홍보(추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모임 2층은 회원모임 공간과 사무실로 3층은 법정스님 자료와 도서, 대중강연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3층 공간은 대관으로 공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홀로 어르신 말반찬 조리, 배달 및 말벗 나눔 : 매주 수요일 / 음식조리활동(10시~13시), 배달 및 말벗활동(19시~21시)
- 연꽃 피는 집(차매노인 요양시설) 정기방문 자원봉사활동 : 매월 셋째 화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출발 / 목욕, 식사도움, 빨래정리, 말벗
- 청도 운문사 봉사 : 매월 둘째 주 금요일 / 대구은행 본점 앞 9시 집결, 출발 / 공양 준비 및 공양재료 다듬기, 청소 등
- 햇살청소년자원사업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가정에 물품 및 문화정서 지원 프로그램 / 분기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과정과 함께 영상 및 문화기행 진행
- 정기 자원 활동가 모집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모임은 소외된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삶의 행복을 찾고자 하는 분들의 참여를 수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조리봉사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 맑고향기롭게(소식지)발송 : 매월 초
- * 사육 관리 및 청소 : 월중 수시
- * 홀로어르신 반찬 나눔 배달봉사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 대구모임 3층 '시민서로배움터' 강좌 안내
태극권, 형의권, 팔괘장 정통계승 및 기공활법 활기공 전수자이며 현재 대체의학 테라피를 진행하고 있는 백무현 선생님을 모시고, 매주 월, 수, 목 오후 8시에 몸살림 기공체조 강좌를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법정 스님 책임기모임 '일기일회' 함께해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회원들이 함께 모여, 법정 스님의 저서 읽기 모임인 '일기일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과 지혜를 책에서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함께 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후원 : 대구은행 002-05-016277-8 (사)맑고 향기롭게 대구지부



경남모임 (055-266-0170)

- **결연가정 후원** :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 오후 4시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 결연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 **외부 시설 봉사활동**
-보현행원 : 무료노인요양원으로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사파복지회관 : 무료급식소(자비 공양의 집),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에 점심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오전 10시~오후 2시
-해 뜨는 교실 : 봉림 청소년 문화의 집, 저소득층 공부방으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5시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 초·중·고 40명 지원
- **천연화장품 만들기 모임** : 매월 첫째, 둘째 금요일 진행 / 오후 1시 30분 / 사무국
- **친환경 수세미 나누기** : 매월 둘째 화요일 모임 및 친환경수세미 판매
- **위안부 할머니 지원활동** : 지역 내 홀로 생활하시는 위안부 할머니 찾아뵙기 및 지원활동
- **선 수련 모임** :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 열린법당 '마하연'
- **회원 만남의 날** :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 / 사무국
- **정기 후원자 및 자원 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932-01-002933
(사)맑고 향기롭게 경남지부

광주모임 (062-236-3129)

- **점심공양나눔**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령, 저소득,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천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김치 담그기 / 매주 토요일 공양 나눔 센터)
- **자비의 도시락 나눔 활동**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위한 도시락 나눔
- **광주모임에서는 동구 산수동에 지역 회원들의 친목과 불자들의 소통, 나눔의 공간으로 맑고 향기로운 가게 '무소유' 찻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독서모임** : 법정 스님의 저서를 매월 선정하여 읽고 회원들과 함께 교류 / 매월 둘째 수요일 / 사무국
- **노래모임** : 건전가요, 명곡 노래 교실
- **장학사업** : 가정환경이 어려운 고등학생을 선발하여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 **장터 및 바자회 운영** : 회원 및 이웃 대상으로 생필품 교환, 기증 헌 옷 판매, 농산물 직거래, 친환경제품 판매
- **쓰레기 줍기 캠페인** : 연중 회원 및 봉사자들과 주변 환경 및 사찰주변 쓰레기 줍기 캠페인 전개
- **천연화장품 만들기**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천연세숫비누, 빨래비누, 천연 화장품
- **정기 후원자 및 자원활동가 수시 모집**

후원 :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 광주지부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같이 열리는 만큼 물이 흐르듯 본 모임의 사업은
100%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는 사업에 뜻을 함께해주세요.

정기후원 / 편리한 CMS 자동이체 신청하기

| | |
|------------------------|---|
| 정기 후원 회원 가입 | 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 접속 가입서 작성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 방문 가입서 작성 www.clean94.or.kr |
| 온라인 후원 | |
| 중앙모임 (02-741-4696) | 일반사업 후원계좌 국민 817-01-0253-129 KEB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이웃 후원계좌 국민 817-01-0255-458 아름다운 마무리 후원계좌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계좌 KEB하나 220-890015-10204 |
| 대구모임 (053-753-8883) | 대구 002-05-016277-8 |
| 광주모임 (062-236-3129) | 농협 355-0018-7812-13 |
| 경남모임 (055-266-0170) | 농협 932-01-002933 |

*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직접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에는 (사)맑고 향기롭게 지부 사무국으로 전화주셔서
회원등록 절차를 진행해주셔야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드릴 수 있습니다.

길상사 소식

Tel:(02)3672-5945 / Fax:(02)3672-5947

추석합동차례

- 선망조상님의 음덕을 기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공양을 올리는 추석합동차례가 봉행됩니다.
- **일시** : 2019년 9월 13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위패번호 1번~500번)
설법전(위패번호 501번~)
- **동참금** : 5만원
- ※ 추석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
까지 참배 가능합니다.

금강경 독송 천일기도

- 일시 : 매일 오후 2시~4시
- 장소 : 극락전
- ※ 금강경 축원은 따로 접수받지 않습니다.

천수다라니 33독 3년 기도

- 일시 : 9월 7일(토) 오후 6시 ~ 8시 30분
- 장소 : 극락전
- 한 가지 소원의 성취를 일념으로 발원하고 신묘장구대다라니를 독송하면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원하는 바가 속득성취되는 영험한 기도가 천수다라니 기도입니다.
- 개인 축원입니다.
- 공양물(떡, 꽃, 쌀 등) 설판 받습니다.

보름기도

- 일시 : 9월 13일(금)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 일시 : 9월 14일(토) 오후 8시
~ 9월 15일(일) 새벽 3시 50분
- 장소 : 극락전

지장재일

- 일시 : 9월 16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지장전

관음재일

- 일시 : 9월 22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 ※ 매달 관음재일에는 인등접수자 축원이 있습니다.

초하루기도 및 법회

- 일시 : 9월 29일(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 극락전

9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 기도

| 기도명/법회 | 날짜 | 시간 | 장소 |
|----------|--------|-------------------------------|-----|
| 다라니 기도 | 9월 7일 | 오후 6시 ~ 8시 30분 | 극락전 |
| 추석 합동차례 | 9월 13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보름기도 | 9월 13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삼천배 철야정진 | 9월 14일 | 오후 8시 | 극락전 |
| 지장재일 | 9월 16일 | 오전 9시 50분 | 지장전 |
| 관음재일 | 9월 22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초하루 기도 | 9월 29일 | 오전 9시 50분 | 극락전 |
| 극락전기도 | 매 일 | 새벽 4시/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 극락전 |
| 지장전기도 | 매 일 | 새벽 4시 40분/오전 9시 50분/ 저녁 7시 | 지장전 |
| 일요가족법회 | 매주 일요일 | 오전 11시 | 설법전 |
| 청년회법회 | 매주 일요일 | 오후 3시 | 세심당 |
| 중·고등법회 | 매주 일요일 | 오전 11시 | 세심당 |
| 어린이법회 | 매주 일요일 | 오전 11시 | 소강당 |
| 새신도 교육 | 매주 일요일 | 오후 1시 | 소강당 |

경전반 / 불교입문 / 불교대학 2019년 하반기 수강생 모집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
2019년도 하반기 길상사 불교대학 / 불교입문 / 경전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불교에 대한 심도있고 바른 지견을 갖추고
수행의 경륜이 깊은 스님들과 재가법사들로 이루어진 강사진이
불교 전반에 대한 명쾌한 이해와 굳건한 신심을 바탕으로
바른 수행의 길로 안내합니다.

경 전 반

개 강 : 9월 3일(화)
응시자격 : 누구나 수강 가능
강의시간 : 매주 (화) 오후 2시~4시
강의기간 : 4개월(14주)
과 목 : 화엄경
수 강 료 : 7만원(교재비 별도)

불 교 입 문

개 강 : 9월 4일(수)
응시자격 : 불교에 처음 입문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강의시간 : 매주 (수) 오후 2시~4시
강의기간 : 3개월(13주)
수 강 료 : 8만원(교재비 포함)

불 교 대 학

개 강 : 9월 5일(목)
응시자격 : 기본 교육수료자,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강의시간 : 매주 (목) 오후 2시~4시
강의기간 : 5개월(19주)
수 강 료 : 학기등록 20만원(1년 40만원)

- 강의 장소 설법전
- 상담 및 접수 종무소 02)3672-5945